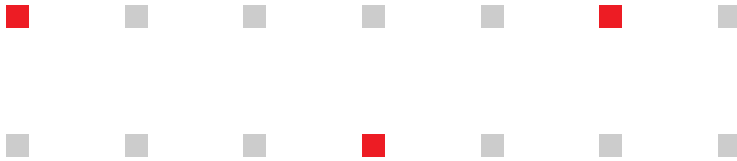


## 또 하나의 지역 활성화 전략 슬로시티 구축을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



1. 다시, 지역 활성화의 길을 묻다
2. 또 하나의 지역 활성화 전략, 슬로시티
3. 지역 활성화와 슬로시티의 연계
4. 지역단위 슬로시티의 구축방안

연구진 황 영 모 부연구위원 [hymism@hanmail.net](mailto:hymism@hanmail.net)



전북발전연구원 이슈브리핑 2011년 10월 10일 vol.59  
발행처 : 전북발전연구원 | 발행인 : 원도연  
주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57(중앙동 4가 1) TEL : 063)280-7100 FAX : 063)286-9206

※이슈브리핑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지난 호 이슈브리핑을 홈페이지 (www.jthink.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C O N T E N T S

또 하나의 지역 활성화 전략  
슬로시티 구축을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

- 1. 다시, 지역 활성화의 길을 묻다 ..... 4
- 2. 또 하나의 지역 활성화 전략, 슬로시티 ..... 4
- 3. 지역 활성화와 슬로시티의 연계 ..... 9
- 4. 지역단위 슬로시티의 구축방안 ..... 15



## ●●● 요약

- 지역경제 활성화는 '생산경제와 생활경제'를 동시에 포괄해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삶의 질, 공동체, 지역 자립'을 고려하는 정책은 중요한 의미를 가짐
- 이러한 관점에서 '지역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실천전략으로 슬로시티'를 분석하고 지역단위의 실천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하였음
- 슬로시티(slow city)는 속도사회에 대한 반성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기 위한 대안적 지역발전론임
- 슬로시티는 지역 고유의 자원과 문화, 주민의 삶의 방식을 존중하는 바탕위에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와 지역공동체가 만들어가는 새로운 지역 만들기의 방식
- 지역 활성화를 다양한 정책적 시도·실천과의 연결을 위해 슬로시티 인증요건을 토대로 슬로시티를 구성하는 핵심요소를 재설정하고, 전라북도 내 실천사례를 검토함
  - 슬로 푸드 : 좋고 깨끗한 먹거리의 실천
  - 슬로 산업 : 지역에 뿌리를 둔 농업과 지역연고산업
  - 슬로 투어 : 소비되지 않는 농촌관광
  - 농촌경관 : 농산촌 어메니티의 보전
  - 슬로공동체 : 참여와 협력으로 만드는 커뮤니티
- 전라북도 차원에서 지역단위 슬로시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제 슬로시티 기준으로 발전하여 나가는 '준 슬로시티'의 성격에서 출발하여 실천 가능한 영역(읍·면)을 범위로 상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라 판단됨
- 지역단위에서 슬로시티를 구축해 나가기 위한 방향으로는 ①물질적 풍요와 편리함과 다른 역발상, ②지역사회에 기반한 농업과 산업이 경제활동의 기초, ③상품화 전략을 통한 지역 이미지 구축, ④네트워크 및 단계적 시장확대, ⑤제도과 행정, 추진체계의 뒷받침, ⑥일상적 품질관리 시스템, ⑦다양한 가능성을 둔 실천모델 창출 등을 고려해야 함
- 전라북도 차원의 지역단위 슬로시티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음
  - 슬로시티 인증을 지향하되 단계적인 정책접근과 확산전략이 필요
  - 슬로시티 내용과 관련한 기존 사업을 재분류하고 리뉴얼하는 방식이 필요
  - 지역현장의 자생적 활성화 사례를 도차원의 사업으로 확대하는 정책화가 필요
  - 도차원의 전담부서 신설과 민간 추진위원회 구성을 통한 실행체계 구축
  - 슬로시티로 상징되는 '삶의 질이 높아 살기 좋은 전라북도'를 지역 이미지로 구축



## 1. 다시, 지역 활성화의 길을 묻다

- 지역경제 활성화란 무엇인가
  - 일반적으로 지역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주역주민의 소득과 복지수준을 증대시키고 지역에 살 수 있게 정주기반을 확대시키는 것을 의미
- 지역주민의 소득과 생활수준의 향상을 위해 지역경제의 양적 확대는 불가결한 요소이지만 단순히 양적확대만이 지역경제 활성화는 아님
  - 지역경제의 목표는 국민경제와 달리 성장만이 아니라 균형과 주민복지에 있기 때문
- 양적 규모의 경제지표 · 규모가 확대되지 않더라도 주민간의 균형화된 삶의 질 향상, 주민복지 증진이 활성화의 주요 판단기준이 되어야 함
  - 결국 지역경제 활성화란 지역의 구성원이 합의한 공통의 목표와 복지증진을 가져오는 경제활동이 활성화 되는 것을 뜻함
- 이는 곧 지역경제 활성화를 '생산경제 영역' 과 '생활경제 영역' 을 동시에 포괄하지 않으면 안 됨을 의미
  - 지금까지는 규모화, 대규모 투자, 경쟁력 등으로 상
- 징되는 생산경제 영역만이 강조되어 왔음
- 앞으로는 '삶의 질, 공동체, 지역자립, 교육, 문화, 복지 등' 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생활경제 영역까지 고려하는 정책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것임
- 특히 지역의 미래에 대한 자기 결정력을 높이기 위한 주민의 자치력(지역역량)이 지역 활성화를 담보하는 핵심기반으로 부각되고 있음
  - 최근의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 커뮤니티 비즈니스 등의 정책과 현장단위의 다양한 실천사례는 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역력(地域力)을 키워가는 의미 있는 사례임
- 이러한 관점에서 이 글은 '지역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실천전략으로 슬로시티' 를 분석하고 지역단위의 실천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슬로시티는 자기 의존적 경제와 지역 공동체를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고자 하는 대안적 지역발전 모델로 평가받고 있음

## 2. 또 하나의 지역 활성화 전략, 슬로시티

### (1) 슬로푸드가 슬로시티의 시작

- 슬로시티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슬로운동 (slow movement)의 한 부분으로 슬로푸드의 정신과 철학에 기반을 두고 있음
  - 슬로푸드(slow food) 운동은 속도사회의 균질성, 지역적 특성의 소멸, 공동체의 파괴 등을 지적하면서 자연과 환경, 사람들과의 연결성 회복을 주장
- 슬로푸드 운동은 1986년 이탈리아 로마에 맥도널드 햄버거의 상륙을 계기로 촉발했음
  - 속도를 중시하는 현대 산업사회의 특징을 상징하는 패스트푸드를 추방하고 전통식단을 포함한 식문화 전통과 인간성 회복의 명분으로 시작
  - 이후 1989년 프랑스 파리에서 슬로푸드 선언문을 채택한 이후 40여개 국가로 확대
- 1999년 이탈리아 키안티 지역의 그레베시는 시장의 리

더십으로 지역발전과 개발을 위한 시도로 슬로시티를 제안하고 실천해 나갔음

- 슬로푸드는 단순히 먹거리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인간 삶의 방식과 환경조성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
- 속도의 노예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역요리의 맛과 향을 다시 발견하고 먹거리의 품위를 떨어트리는 패스트푸드를 추방하자고 역설
- 주민들의 불편함을 설득하면서 2001년 그레베시를 공식적인 슬로시티로 지정하면서 본격화했음<sup>1)</sup>
  - 주차·차량진입금지, 부동산소유제한, 전통적인 농축산물 재배·사육 등은 주민들의 반발을 야기했지

만 슬로(slow)는 불편함이 아닌 기다림이라는 철학으로 주민을 설득

- 생산성 향상이란 이름으로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고 경관과 환경을 위협하는 나쁜 생활태도 추방을 강조
- 최초의 슬로시티 그레베시는 전 세계가 찾는 지역발전 성공모델로 평가되고 있음
- 패스트푸드점과 인스턴트 식품 자판기가 보이지 않는 자연친화적 관광도시로 탈바꿈
- 전 주민이 직업을 갖는 고용률 100% 지역으로 중소도시 이상의 높은 주민 소득을 창출

## 최초의 슬로시티, 이탈리아 그레베시의 슬로시티 추진과정과 성공요인

### ○ 슬로시티 추진의 배경과 과정

- 키안티 지역의 그레베시는 여느 농촌마을과 같은 소득감소와 노령화로 침체일로로 걷고 있었으며, 지역의 유일한 소득원은 포도와 올리브 재배였음
- 당시 시장인 파올로 사투루니니<sup>2)</sup>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존 방식의 대도시 통합이나 대규모 산업단지를 유치할 것이냐, 아니면 작은 도시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환경과 전통을 장점으로 살릴 것이냐를 고민하다 후자를 선택
- 이러한 정책과 생각의 전환은 주민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지만 현대적 개발은 더 이상 미래가 없다고 주민을 끈질기게 설득하고 정책의 변화를 시도
- 가내 수공업이나 전통방식의 농업생산을 지켜나갈 것을 권장했고, 패스트푸드점의 입점, 외부 자본에 의한 대형마트와 외부인의 부동산 소유를 금지시키고, 시각적 공해를 줄이기 위해 밤에 간판, 가로등을 켜지 않음
- 주민들은 직접 채소와 곡물을 재배하거나 가축을 사육해 1주일에 두 번 열리는 재래시장에서 신선한 먹거리를 사먹어 대형냉장고가 많지 않음

- 차량을 통제하고 산책로를 만들어 방문객의 체류시간과 소비를 늘렸고, 지역 생산 전통식품·가공품은 슬로시티에서 생산되었다는 이유로 판매량이 증가하고 상품가치가 늘어 소득수준을 높여줌

### ○ 슬로시티 성공의 몇 가지 요인

- 철저히 지역주민들이 중심이 된 커뮤니티 운동 : 오랜 과정으로 주민을 설득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거침
- 지역주민을 주인공(마을의 콘텐츠)으로 내세움 : 외부와의 교류에 마을사람을 전면에 내세우는 연출을 통해 주민의 자부심 고취와 단결력을 높임
- 지역의 산업발전과 관광객 증가가 주민소득으로 귀결 : 방문객은 자동차 없이 걷게 하여 도시 전체를 산책로화 하고 체류시간을 늘려 소비를 높임
- 시장(행정)의 리더십 : 지역의 환경과 정체성을 파악하고 주민과 함께 하는 리더십 발휘, 시장 직 이후에도 지역의 리더인 '슬로 프렌드(slow friend)'로 남음



1) 2000년대 초반, 이 시기는 유럽 전역이 광우병 파동으로 슬로시티는 현대문명이 낳은 재앙 앞에 자연회복을 강조하는 촉진제 역할.  
2) 파올로 사투루니니(Paolo Saturnini), 1990년부터 2004년까지 14년간 그레베시 시장을 역임.

## (2) 슬로시티의 기본요건과 현황

- 슬로시티는 가속화되는 도시화를 지양하고 지역성·진통성에 기초함
  - 여유로운 생활을 위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고자 하는 대안적 도시 또는 지역발전 모델로 평가할 수 있음
- 슬로시티 운동이 지향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이 7가지로 요약됨
  - 도시의 특성을 유지·발전시키는 환경정책을 추진한다
  - 토지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점령의 의미를 최소화하는 정책을 유도한다
  - 도시의 환경과 질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기술을 활용한다
  - 자연친화의 기술로 얻어진 식품의 생산과 활용을 장려한다
  - 문화화 전통에 접목된 토속생산품을 보호한다
  - 공동체의 실질적인 연결을 통해 인적교류와 접촉을 장려한다
  - 슬로시티에 관한 주민들의 삶의 인식을 확대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진행한다
- 슬로시티 인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요건이 있음
  - 인구 5만명 이하
  - 대체 에너지 등 친환경 에너지 개발
  - 마을광장 내온사인 없애기
  - 전통수공업·전통조리법 장려
  - 문화유산 지키기
  - 차량통행제한
  - 자전거도로 만들기
  - 경적 등 소음 줄이기
  - 주민들의 의견수렴
  - 패스트푸드·유전자변형 음식 거부
  - 글로벌 브랜드의 대형 체인점 거부

- 나무심기
- 외지인의 부동산 거래금지
- 실외자판기의 최소화

- 슬로시티 국제연맹(Cittaslow International Network)은 슬로시티로 지정받기 위한 기준을 6개 분야 총 54개 항목을 제시하고 있음
  - 지정을 원하는 지역은 54개 항목 중 24개 필수항목에 대한 자료를 제출, 지역본부는 필수항목 50% 이상 부합여부를 심사하여 슬로시티 국제연맹이 최종 심사하여 지정
- 슬로시티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은 전 세계적으로 24개국, 147개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아시아에는 중국과 우리나라뿐<sup>3)</sup>
  - 우리나라의 슬로시티는 2007년 도입되어 현재 10개소가 슬로시티로 지정되어 있음
  - 2007년(담양군 창평면, 신안군 증도면, 장흥군 장평면, 완도군 청산면), 2008년(하동군 악양면, 예산군 대흥면·응봉면), 2010년(남양주시 조안면, 전주시 한옥마을), 2011년(청송군 파천면, 상주시 함창읍) 등



3) 일본은 슬로시티 지정도시는 없지만 지역만들기(まちづくり)와 연계되어 추진되는 슬로타운(slow town) 운동이 있음.



## 〈슬로시티 지정을 위한 24개 필수항목〉

주요항목	필수 세부항목
환경정책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에너지 절약 대체 에너지 사용 계획</li> <li>빛 오염 관리시스템 및 프로그램</li> <li>유전자변형 농산물 사용금지</li> <li>환경운영시스템(ISO9000,14000,22000등)</li> </ul>
기초시설정책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가용 사용억제를 위한 보행 및 자전거도로, 대중교통의 통합 운영</li> <li>공공장소에서의 노약자를 위한 편의시설</li> <li>지역 노약자를 위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li> <li>공공구조물의 재정비 및 관리</li> <li>민원실과 슬로시티 활동의 창구 통합</li> </ul>
도시경관 및 미관정책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친환경 건축을 위한 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li> <li>친환경적 쓰레기 처리 및 소음지역의 방음조치</li> </ul>
지역특산품의 가치화 정책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기농 농산물 개발계획</li> <li>지역특산물 판매를 위한 정책적 배려</li> <li>장인의 수공예품, 예술적 가치가 있는 제품의 품질 보증정책</li> <li>소멸위기에 있는 지역생산물, 특산물, 장인의 수공예품 보호 프로그램</li> <li>소멸위기에 있는 전통적 작업방식 및 직업의 상품가치화 정책</li> <li>단체음식점, 학교급식 등에서의 유기농 및 지역특산물 사용을 위한 정책</li> <li>슬로푸드 연맹과 공조를 통한 의무교육기관.기타 교육기관에서의 맛과 음식교육 프로그램</li> <li>지역문화행사의 가치향상과 보전을 위한 활동</li> </ul>
관광객 수용정책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의 관광안내 및 친절교육 계획</li> <li>관광객을 위한 안내 및 홍보계획</li> </ul>
시민참여와 인식확대정책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슬로시티 인식확산을 위한 대주민 홍보계획</li> <li>사회적 차원의 대외적 교육 및 협력 프로그램 계획</li> <li>슬로시티 및 슬로푸드 활동의 대외적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계획</li> </ul>

자료 : www.cittaslow.kr

## 〈전 세계 슬로시티 지정현황, 24개국, 147개 지역〉

국가	지역	지역	국가	지역	지역
오스트리아	3	Enns, Hartberg etc.	스페인	6	Begur, Bigastro, Tekeitio etc.
벨기에	4	Silly, Lens, Enghien etc.	스웨덴	1	Falkoping
덴마크	1	Svendborg	스위스	1	Mendristo
프랑스	1	Segonzac	폴란드	6	Reszel, Bisztynek, Biskupiec etc.
독일	9	Bad Schussenried etc.	호주	3	Goolwa, Katoomba, Yea
영국	6	Berwick upon Tweed etc.	뉴질랜드	1	matakana
이탈리아	70	Orvieto, Bra, Greve etc.	미국	3	Fairfax, Sebastopol, Sonoma
네덜란드	3	Alphen Chaam, Borger-odoorn	캐나다	2	Cowichan Bay, Naramata
노르웨이	3	Eidskog, Levanger, Sokndal	터키	5	Akyaka, Gokceada etc.
포르투갈	5	Lagos, Silves etc.	남아프리카	1	Sedgefield
핀란드	1	Kristinestad	중국	1	Yaxi
헝가리	1	Hodmezovasarhely	대한민국	10	담양,신안,장흥,완도,하동,예산,전주 등

자료 : www.cittaslow.org에서 작성, 2011년 9월 현재

### (3) 속도사회의 대척점에 선 대안적 지역발전론, 슬로시티

- 슬로시티는 속도사회에 대한 반성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기 위한 대안적 지역발전론임
- 속도사회는 사람들 간의 '경쟁의 원리'에 있으며, 이 원리가 적용되어 속도사회를 가속화하는 원인으로 지적됨
  - 상승의 사고방식이 지배적 가치가 되면서 속도는 경제적 기반을 벗어나게 되었고 속도의 가속화는 '무엇을 위한 가속화보다 가속화 그 자체를 위한 것이 되었다'고 지적(Borscheid, 2008)
- 사회구조가 속도사회로 전환하게 된 배경은 기술발전,

- 합리주의,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확산 등에 있음
- 이러한 경향이 지속된 결과, 장소의 확실성(authenticity)이 파괴되고 지역은 불확실성과 무장소성(placeless)이 강화되었다고 분석(Knox, 2005)
- 물질적 문화와 생활양식의 혼란이 가중될수록 지역적 고유의 정체성은 더욱 가치를 가지고 특정한 장소와 공동체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짐
- 결국 느림사회의 출현은 '속도사회의 역설'의 결과로 슬로시티는 경제발전, 환경보존, 사회적 공평을 위한 목표 간에 상호의존성이 있다고 파악할 수 있음
- 슬로시티는 기업 중심적 지역발전예 대안적 지역발전모델'로 두 모델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기업중심적 지역발전과 대안적 지역발전의 모델 비교〉

구분	기업 중심적 지역발전 모델	대안적 지역발전 모델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tyle="width: 50%;">• 균질화</li> <li style="width: 50%;">• 단일원칙</li> <li style="width: 50%;">• 불공평</li> <li style="width: 50%;">• 산업적</li> <li style="width: 50%;">• 표준화</li> <li style="width: 50%;">• 기업</li> <li style="width: 50%;">• 지속불가능</li> <li style="width: 50%;">• 모방</li> <li style="width: 50%;">• 낮은 질</li> <li style="width: 50%;">• 복제 가능</li> <li style="width: 50%;">• 지역역사 · 문화 둔감</li> <li style="width: 50%;">• 빠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tyle="width: 50%;">• 특성화 · 특수자산</li> <li style="width: 50%;">• 다양한 원칙</li> <li style="width: 50%;">• 공평</li> <li style="width: 50%;">• 수공업적</li> <li style="width: 50%;">• 특별 주문</li> <li style="width: 50%;">• 주민</li> <li style="width: 50%;">• 지속가능</li> <li style="width: 50%;">• 진정</li> <li style="width: 50%;">• 높은 질</li> <li style="width: 50%;">• 특수하게 한정</li> <li style="width: 50%;">• 지역역사 · 문화 민감</li> <li style="width: 50%;">• 느림</li> </ul>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 대규모 계획</li> <li>• 굴뚝산업 추구</li> <li>• 산업적 음식체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체 경제발전</li> <li>• 슬로시티</li> <li>• 슬로푸드</li> </ul>

자료 : Mayer & Knox(2006)

- 슬로시티로 대표되는 대안적 지역발전모델은 패스트푸드점에 내재된 빠른 삶과 철학, 물질성의 확산의 문제를 극복하는 영역창출에 있음
  - 속도사회와 다른 방식의 지역사회 발전 추구를 통해 과거로 회귀하자는 것이 아니라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통해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것
- 슬로시티가 대안적 지역발전모델로<sup>4)</sup> 주목받는 것은 대안적 경제의 요소들을 상당부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임
  - 공동체 내에 높은 숙련과 일과 관련된 재능이 있는 인적자본이 요구됨
  - 일자리 기회와 경제적 활동성을 동시에 구현하는 공

- 동체의 안정성이 필요함
- 지역개발의 비용 · 이익은 물론 공동체 불안정으로 발생하는 비용 · 능률도 감안함
- 공동체 불안정은 사회적 자본을 파괴하여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 기초한 생산적 자산이 경제의 중심이 되어야 함
- 자기 의존적 지역경제로서 외부자본의 유치보다 지역적 필요에 의한 생산과 지역 토착적 경제발전예 초점을 둠(경제적 지역주의(economic localism)와 관련)
- 지역사회에서 생산된 이윤과 성과가 다시 지역사회

4) 대안적 지역발전론은 다양하게 분화 · 발전하고 있어 하나의 유형으로 수렴되지는 않음. 슬로시티 유사개념으로 지방의제 21(Local Agenda), 뉴어바니즘(New Urbanism), 스마트성장(Smart Growth), 지역만들기(まちづくり), 어반빌리지(Urban Village),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등이 있음.



- 로 환류되는 경제활동 구조를 마련함
- 슬로시티는 주민 주도적 참여를 통한 상향식 접근과 음식, 문화, 자연 등과 그 지역 특유의 역사성을 강조 하면서 내발적 발전론과 유사함

- 기존 개발방식에서 나타나는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의 질적 저하 문제에 관심을 두고 인간과 자연간의 관계 설정에 주목하게 되는데 이는 일본의 지역 만들기(まちづくり)의 관점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음

### 슬로시티 실천을 바라보는 긍정과 비판의 시각

전 세계적으로 슬로시티의 추진과 실천이 확대되고 있지만, 슬로 시티 활성화 사례 연구의 분석을 종합하면, 긍정적 측면의 성과와 비판적 시각이 함께 공존하고 있음

- 긍정적 측면
  - 지정된 대부분의 도시들은 인지도가 높아져 관광객이 큰 폭으로 증가했음
  - 이에 따른 경제적 기회의 증가(소득향상, 고용확대 등) 가능성도 높아짐
  - 지역 전통·고유문화를 유지·발전시켜 지역의 소속감·정체

- 성·자부심 등이 높아져 사회적인 지속 가능성을 향상시킴
- 비판적 시각
  - 슬로푸드는 상류층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적 코드로 일반 인과는 분리될 수 있음
  - 지나친 관광 산업화와 관광객 증가는 문화적 충돌, 장소의 고유성·확실성을 위협함
  - 외부 네트워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고립된 공동체화 가능성이 높음
  - 관광산업 활성화로 외부자금의 유입이 많아져 지역 의존적 경제순환구조가 와해될 수 있음

## 3. 지역 활성화와 슬로시티의 연계

### 1) 지역 활성화를 위한 슬로시티 구성요소 재설정

- 슬로시티를 지역 활성화 전략으로 연계하기 위해서는 그 구성요소를 새롭게 재분류할 필요가 있음
  - 전라북도는 슬로시티 실천을 위한 여러 자연 환경적 여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낙후와 열악한 생활여건이 자칫 ‘배부른 소리’로 비취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
  - 또한 이미 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시도와 실천이 이뤄지고 있어 기존 정책과의 관계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슬로시티와의 연결논리가 필요함
- 국제 슬로시티 인증요건을 토대로 슬로시티를 구성하는 핵심요소를 다음과 같이 재설정하였음



- **슬로푸드 (slow food)**  
전통식단, 식문화 전통을 중시하는 슬로시티의 시작점
- **슬로산업 (slow industry)**  
자기 의존적 경제를 구성하는 지역 토착적 경제구조
- **슬로투어 (slow tour)**  
외부 소통·교류의 유력한 수단으로 소비 되지 않은 관광
- **농촌경관 (rural scene & culture)**  
지역전통·고유문화 유지를 위한 환경과 어메니티 조성
- **슬로공동체 (slow community)**  
참여와 협력을 통한 살기 좋은 지역 공동체

**(1) 좋고 깨끗한 먹거리의 실천, 슬로푸드(slow food)**

○ 지역의 전통적인 식생활 문화나 식재료를 다시 검토하는 운동 또는 식품 자체를 의미하며 '좋은 음식, 깨끗

한 음식, 공정한 음식'을 강조

• 맛의 표준화와 동질화를 지양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전통적 다양한 식생활 문화 추구

○ 관련된 개념으로는 '전통음식, 향토음식, 로컬푸드' 등을 들 수 있음

개 념	주요 내용
전통음식	특정지역을 배경으로 오랜 역사 속에 형성, 지역의 식재료를 음식소재로 하여 식습관·문화화된 음식을 지칭
향토음식	지역적으로 좁은 범위로 지역의 식재료를 중심으로 한 조리법 발달로 지역주민이 선호하는 음식
로컬푸드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운동, 생산자와 소비자가 얼굴 있는 만남으로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농산물 소비를 강조

○ 관련정책 및 주요사례

- 향토음식 자원화 사업, 전통식품 품질인증제도, 전통식문화 프로그램 보급 등의 정책과 식생활교육지원법을 통한 식생활 교육 등 전개되고 있음
- 국제적으로는 이탈리아의 슬로푸드 운동, 영국의 로컬푸드 운동, 일본의 지산지소(地産地消) 운동과 함께 경기도 슬로푸드마을, 순창전통고추장민속마을

등을 주요 사례로 꼽을 수 있음

○ 실천을 위한 정책과제

- 지역과 식재료에 따라 다른 식품의 다양성을 확립하고, 역사와 문화 속에서 형성된 전통음식의 복원이 시급
- 수입산 농식품과 차별화된 식품의 안전성 확립을 바탕으로 식생활 교육의 실천과 주민운동으로의 승화는 물론 관광 자원화한 경제적 다각화 실천이 필요



- 2005년부터 여성농업인 12여명이 여성농업인센터를 중심으로 한 자생적 도농교류 프로그램을 만들어 감
- 서울 소비자 중심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25가족, 32꾸러미)와 영농체험 등의 교류활동이 활발
- 여성농업인의 친환경 농업 실천과 농산가공의 거점은 물론 농촌 사회 활성화에 크게 기여



- 완주군이 주도하는 자연 그대로의 음식, 체질 먹거리를 주제로 한 로컬푸드, 슬로푸드 축제
- 100여개 마을에서 저마다의 손맛으로 시골 밥상 경연대회를 벌이고, 각종 체험행사 진행
- 6개월 전부터 마을과 지역 공동체가 주도로 슬로푸드와 농촌문화를 테마로 엮어내는 과정을 거침

## (2) 지역에 뿌리를 둔 농업과 지역연고산업, 슬로산업(slow industry)

- 농산촌 경계의 중심인 농업과 다양한 향토자원을 매개한 지역 연고산업으로 외부자본과의 종속적 관계가 아

닌 자기 의존적 발전을 강조

- 친환경·유기농업의 실천, 소상공인이 주도하는 지역시장 활성화로 이익의 지역화를 추구
- 관련된 개념으로는 ‘지연(地緣)산업, 향토산업, 유기농업’ 등을 들 수 있음

개 념	주요 내용
지연산업 (地緣産業)	지역자본에 의해 설립되고 운영되는 중소기업 등이 지역의 원료와 노동력으로 상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유기적 생산체제를 의미
향토산업	지역성과 문화적 전통성이 있는 지역자원을 기초로 상품화, 사업화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유기농업 <sup>5)</sup>	물질적 풍요의 반성, 생태·환경과 식품안전의 중요성 인식 위에 천연자원을 사용하여 농산물은 물론 생태계의 건강까지 고려하는 친환경 농업의 부분

- 관련정책 및 주요사례
  - 친환경·유기농업, 향토산업육성사업,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 지리적 표시제도, 농촌활력증진사업, 에너지 자립마을 정책 등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나, 지역과의 긴밀한 결합을 통한 성과창출에는 많은 한계를 보임
  - 순창전통장류산업, 남원목공예산업, 보성녹차산업

등은 지역에 뿌리를 둔 전통산업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나가는 좋은 사례임

- 실천을 위한 정책과제
  - 자원 순환형 친환경 농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지역농업 구조재편 전략과 함께 지역 내 소상공인의 활발한 경제활동과 연계되는 지역산업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함



- 순창전통장류산업은 지역 농산물을 원료로 한 대표적 지역 토착형 지연산업(대기업 중심 지양)
- 2005년부터 농업생산자조직이 영세전통장류업체와 장류원료농산물 계약재배사업을 지속하고 있음
- 이후 행정과 지역농협의 참여와 지원으로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장류산업의 안정화에 크게 기여



-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친환경 농업철학(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생산자 건강)을 바탕으로
- 쌀농업과 축산을 결합한 자원 순환형 농업 시스템을 갖추고, 인근 6개 면까지 친환경 농업을 확산
- 지역농협, 초등학교, 소비자와의 교류는 물론 농촌노인, 농촌교육 등 지역문제 해결에도 노력

5) 유기농업은 에너지 자립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파악되어야 함. 에너지 자립의 개념으로는 생활 및 농업생산 활동에서 에너지 사용 줄이기, 바이오매스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대안 에너지 사용을 통한 에너지 자립 마을 구축 등이 있음

### (3) 소비되지 않는 농촌관광,<sup>6)</sup> 슬로투어(slow tour)

- 관광 자체가 목적이 아닌 도농교류의 증가가 자연스럽게 관광으로 연결되는 활동, 지역 내 체류를 통해 배우

고 느끼는 학습활동을 강조

- 슬로푸드를 체험하고 농업·농촌 문화를 체험하는 형태로 자연중심 관광개발을 탈피, 문화중심의 질적인 품질관광으로 주민주도가 강조되는 대안관광의 성격을 가짐

개 념	주 요 내 용
음식관광	관광객이 관광지에서 경험하는 음식과 관련된 모든 활동으로 관광의 주된 목적이 음식과 관련된 활동을 의미
지역축제	지역주민의 생활과 문화를 축제를 통해 집약적, 함축적으로 표출한 지역문화의 총체. 이벤트와 컨벤션 의미를 포괄하는 폭 넓은 지역사회 통합의 장
걷기여행	트레킹, 건강과 웰빙, 자연과 생태, 성찰과 일상탈출, 문화체험 등을 요소로 길을 따라 자연자원 또는 문화자원을 체험하고 감상하며 걷는 여행

- 구체적 형태 및 개념으로 ‘음식관광, 지역축제, 걷기여행’ 등을 들 수 있음
- 관련정책 및 주요사례
  - 과도한 축제에 대한 평가와 반성이 이뤄지는 가운데 음식관광과 도보여행 프로그램이 정부의 문화생태탐방 천리길 만들기 프로젝트, 생태탐방로 등과 연계되

- 어 확산되고 있음
- 임실치즈마을, 진안군 마을축제, 지리산 둘레길 등은 자원과 관광을 결합한 좋은 사례
- 실천을 위한 정책과제
  - 과도한 인위적 개발을 지양하고 지역의 자생력을 증가시키면서 복잡한 대중관광에서 경험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착지형 프로그램의 개발과 안착화가 중요



- 2000년부터 본격화된 독자적 마을만들기 활동성과를 바탕으로 지역특성화 한 대표적 지역축제 모델
- 30여개의 마을이 주체가 되어 축제를 기획하고 다양한 형태, 각지의 공간에서 이뤄지는 참여형축제
- 2008년부터 시작되어 마을잔치, 교류·어울림 등을 주민의 직접 참여로 만들어가고 있음



- 20여년간의 친환경 농업을 철학으로 치즈체험 중심의 대표적 농촌체험관광 마을 만들기 사례
- 슬로푸드 음식(치즈, 피자)체험, 농사교육 연계 프로그램 등으로 배우면서 즐기는 체류형 관광을 실천
- 모든 일을 주민 주도로 만들어가고 주민 이익배분과 지역발전기금 기부 등의 지역사회 기여가 특징

6) 농촌관광은 지역의 자연과 생활문화, 농촌체험활동 등을 바탕으로 여가활동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부가서비스와 함께 숙박과 체험시설을 이용하는 복합적이고 다양한 모든 형태의 관광을 총칭. 독일은 rural tourism,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agri-tourism, 영국과 일본은 green tourism등을 사용.



#### (4) 농산촌 어메니티의 보전<sup>7)</sup> **농촌경관(rural scene & culture)**

- 농촌자원에 대한 가치 인식의 변화를 바탕으로 대상

화·패치화된 자원을 어메니티로 복원하고 보전하기 위한 주민주도의 활동을 강조

- 농촌경관은 농촌의 자연과 인공환경, 눈에 보이는 경관, 생태계의 작용, 인간의 활동, 역사적·문화적 의미를 포함

개 념	주 요 내 용
자연·생태적 경관	논·밭·초지·논두렁·밭두렁 등의 농지경관, 수로·소하천·저수지 등의 하천경관, 산림·구릉지·들판 등의 산림녹지 경관을 포함
인공적 경관	비닐하우스·축사·수리시설 등의 생산시설경관, 주택·학교·공장 등의 취락경관, 도로·농로·교량 등의 교통시설경관, 여가시설경관, 스카이라인·높이·색채·형태·용적을 등의 건축물 경관을 포함
역사·문화적 경관	주민의 삶의 모습이 이미지화 되어 나타나는 전통문화, 문화유적, 민간신앙, 풍수 등의 사상적 요소를 포함

- 농촌경관은 '자연·생태적 경관, 인공적 경관, 역사·문화적 경관'으로 나눌 수 있음<sup>8)</sup>
- 관련정책 및 주요사례
  - 어메니티 자원화를 위한 농촌경관관리법률, 지자체 관리조례 등 제도적 정책이 확대 시행되고 있으나, 지역개발사업의 일환의 인위적 경관조성 사업 등은 문제로 지적

- 고창청보리밭, 남해다랭이마을, 전주한옥마을 등은 경관보전·관리의 성공사례로 들 수 있음

- 실천을 위한 정책과제
  - 인위적 정비·관리보다 지역 정체성을 나타내는 어메니티 자원으로의 활용이 관건이지만, 소득창출 수단으로의 활용과 창조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제불가능성과 비경합성이라는 공공재적 특성에 따른 정책적 관리가 필요



- 지붕 없는 박물관 에코 뮤지엄을 목표로 과거의 전통과 역사를 복원하는 면단위 경관관리 사례
- 간판 디자인 프로젝트, 공공 디자인 프로젝트, 전망대 만들기 등이 주요내용
- 지역의 작은 경관요소들을 행정, 주민, 전문가, 매개자가 협력한 주민 참여형 경관 만들기 사례로 평가



-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13개 읍·면의 역사·문화·자연 등 기초자산을 체계적으로 조사
- 민간 전문가와 함께 행정의 자연, 문화, 사회, 인적자원 등 지역자산을 밀착 조사, 책으로 발간
- 자원조사에 그치지 않고 주민 참여형 읍·면 장기발전계획 수립에 적극 활용하여 현안 사업화

7) 농촌경관은 농촌주민의 가치관, 사회제도, 역사·관습, 농업기술 등 문화적 요소가 자연과 오랜 시간을 두고 형성된 것으로 촌락의 입지·형태, 건물의 배치·형태, 건축의 재료·기법, 농지의 형태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파악하기도 함(박헌춘·김승근, 2008).  
 8) 생활공간(농촌주민이 삶을 영위하는 생활의 터전), 생산공간(농업생활이 이뤄지는 곳), 자연공간(생산공간을 제외한 산림·녹지·하천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송미령·김홍상, 2001), 시점의 원근을 중심으로 영역(자연환경공간, 농업생산공간, 주거공간, 선(기반시설공간), 요소(문화역사경관, 공공시설경관, 생산유통시설경관) 등으로 나누기도 함(성주인, 2005).

### (5) 참여와 협력으로 만드는 커뮤니티, 슬로공동체(slow community)

- 슬로시티 실천으로 주민참여, 주민의식 및 생활여건의 변화를 이뤄 지역사회 공동체 건설 및 삶의 질 향상

상과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강조

- 슬로공동체는 지역사회의 사회자본으로 ‘규제와 장려, 주민참여 프로그램, 거버넌스와 추진체계’ 등을 주요 요소로 들 수 있음

개 념	주요 내용
규제·장려	자동차 없는 거리, 패스트푸드점·자동판매기 없애기, 외부자본의 사업진입제한, 재활용 하기 등의 규제와 장려에 관한 제도적 장치와 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	지역주민이 직접 실천하고 행동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형성이 관련. 구체적으로 문화·예술행사, 평생학습 프로그램, 걷기문화 정착 등
거버넌스 추진체계	주민이 개인 또는 집단적으로 공식적·제도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해관계자의 협력과 파트너십을 끌어내 통합과 조정, 역할부여와 실행하는 체계

- 관련정책 및 주요사례
  - 대기업의 지역경제 잠식 규제와 전통시장 육성을 위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유통산업법), 지자체 차원의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조례 등을 통한 참여가 확산되고 있음
  - 사업의 기획, 결정, 집행, 평가 등에 걸쳐 다양한 주민참여 및 학습 프로그램의 확산과 정착은 지역 주민의 의식의 전환과 협력과 파트너십의 강화에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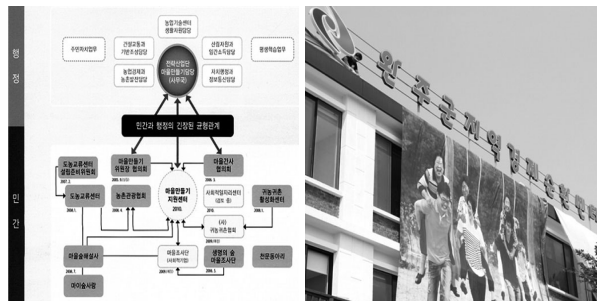
- 실천을 위한 정책과제
  - 주민의 긍정적인 참여와 협력, 이를 바탕으로 한 지역 전체의 통합 등은 지역사회 유지와 활성화의 중요한 요소
  - 주민의 태도와 인식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실천학습(learning by doing)을 통한 주민역량 강화가 현실적 방안으로 제안되고 있음
  - 주민의식 전환과 자발적 실천이 핵심으로 정책(사업)화 과정에서 갈등소지를 안고 있음

재래시장 골목상권을 지키는 SSM 진입규제



-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을 크게 위협하는 SSM의 진입에 대응해 이를 규제하는 조례를 제정
- 전통상업 보존구역을 지정하여 대기업 상권의 진입을 규제,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를 추구
- 전주·군산·정읍는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공포, 익산·진안·남원 등도 추진 중

중간지원조직을 통한 주민참여 거버넌스 구축



- 주민참여 방식의 정책 확산은 이를 지원할 반관반민(半官半民)의 중간지원조직 형태로 확장되고 있음
- 진안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완주군 지역경제순환센터, 전라북도 마을만들기협력센터 등은 행정의 정책영역에 민간이 참여한 대표적 사례임



## 4. 지역단위 슬로시티 구축방안

### (1) 개념과 지향

- 개념과 범위
  - 지역 고유의 자원과 문화, 주민의 삶의 방식(life style)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만들어가는 ‘새로운 지역 만들기의 모델’
  - 슬로푸드, 슬로투어, 슬로산업, 경관보전 등 슬로시티의 실천 가능한 영역에서 지역 공동체 형성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는 ‘대안적 지역 만들기 실천전략’
  - 지역<sup>9)</sup>의 범위는 기초 지자체 단위를 상정하기보다 지역주민의 실천 가능한 영역(읍·면 혹은 여러 읍·면)으로 상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판단됨
  - 국제 슬로시티 기준으로 발전하여 나아가기 위한 ‘준 슬로시티’ 로서의 성격을 가짐

※ 슬로시티의 시티(city)는 농촌과 대비되는 의미가 아니라 ‘마을, 공동체, 지역’이라는 의미를 가짐. 이에 따라 슬로커뮤니티(slow community), 슬로빌리지(slow village) 등으로 구체화하여 대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함

- 추구하는 지향점
  - 지역주민이 살기 좋으며, 일하기 좋은 지역을 만들고, 외부 사람들이 찾기 좋은 장소를 만드는 것
  - 과거로의 회귀와 퇴화가 아닌 지역주민의 보다 아름다운 삶을 위한 ‘행복한 기다림’을 추구
  - ‘지역의 힘으로, 주민의 참여로’ 자립형 경제활동 구조를 만들어 가면서 외부와의 역동적인 교류와 네트워크로 활력을 내재화

### (2) 추진방향

- 물질적 풍요로움과 편리함과는 다른 역발상으로 접근해야 함
  - 생활의 편리와 물질적 풍요보다 인간적·정신적 풍요로움과 조화를 강조하는 컨셉을 찾아야 함
  - 신속과 편리한 숙박시설·도로확충 등을 제한하고 ‘전통, 꼬불꼬불, 아늑함, 옛스러움’ 등의 이미지 구축에 주력해야 함
- 지역사회에 기반한 농업과 산업이 경제활동의 기초가 되어야 함
  - 경제활동의 이익이 지역사회에 내재화하는 방법은 지역연고산업에 기반할 때 가능함
  - 지역농업과 소상공인이 지역경제의 주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과 외부자본의 시장잠식을 막아내는 시스템이 필요함
- 상품화 전략을 통해 지역별 이미지(브랜드) 개발이 이뤄져야 함
  - 지역의 정체성과 이미지를 잘 표현할 수 있는 브랜드 가치를 발견하여 의미있는 상품화가 필요함
- 네트워크<sup>10)</sup>와 연계 마케팅, 단계적 시장 확대가 필요함
  - 국내외 지역과 연계, 교류·교환을 통해 활동의 지속적 갱신과 유지가 필요함
  - 고정고객(매니아층)을 중심으로 하되 점차 시장이 확대되어 나갈 수 있는 전략구사가 중요
- 제도와 행정적 뒷받침은 물론 내실있는 추진체계를 갖추어야 함
  - 지자체 수준에서 결정할 수 있는 제도와 행정 등의 법적 뒷받침이 수반되어야 함

9) 지역이란 생활상의 필요에 의해서 그 구성원이 연대 또는 관계를 맺는 공동의 공간으로 지역의 범위는 행정적으로 주어질 수 없고, 주민이 자신의 필요에 기초해서 다른 사람과 연계(연대)해야 할 범위로서 주민 스스로가 정할 문제로 파악

10) Putnam(1993)에 따르면 사람들이 더 많은 관계를 맺을수록, 풍부한 네트워크를 형성할수록 서로를 더욱 신뢰하고 개인적으로 집단적으로 더 바람직한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 네트워크의 장점임.

- 활력있는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가면서 주민 참여형 추진체계(조직)를 구축해야 함
- 일상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품질관리 시스템을 갖추어야 함
  - 궁극적 목적인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부합되는지, 다양한 형태의 경제활동이 슬로시티 기준에 맞게 이뤄지고 있는지의 점검과 평가는 일정 수준의 품질유지에 필요조건임
- 다양한 형태의 가능성을 열고 지역 특성에 맞는 실천형태를 창출해야 함
  - 다른 도시와 지역과는 차별화되는 슬로커뮤니티 컨셉을 찾아 지역적 특성에 맞게 다양성을 갖춘 디자인(지역경영) 노력이 필요함

### (3) 전라북도 정책과제

- 국제 슬로시티 인증을 지향하면서 단계적 정책접근과 확산전략을 구사
  - 슬로시티(슬로시티 지정)로 나아가는 사전단계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슬로시티를 구성하는 주요영역의 내실있는 실천이 우선과제
  - 성과창출에 집착해서는 실패한 정책사례로 평가될 우려가 많기 때문에 지역사회 변화라는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이 중요
  - 시범 사업을 통한 지역단위 성공사례를 창출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확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 슬로시티 구성의 주요영역과 관련하여 기존의 관련 사업을 재검토·분류하고 정책을 리뉴얼하는 방안이 필요함
  - 기존 마을만들기 사업 등 지역단위 사회적 경제 영역의 여러 정책사업을 슬로시티 구축과 연계하여 활용하는 것이 정책 리스크를 줄이는 효과적인 방안
- 지역단위에서 자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슬로시티 연관 활성화 사례를 분석하여 전라북도 차원의 사업으로 묶어내는 정책화가 바람직

영역	슬로시티 연계 또는 확장 가능한 사업의 예시
• 슬로푸드	공동체 지원 텃밭 꾸러미 농업, 향토음식 발굴, 도시 농업 지원, 학교농장, 지역 농산물 지역소비 시스템 구축 등
• 슬로산업	지역연고산업 육성, 에너지 자립마을 육성, 전통시장 활성화, 소비자조직(생협) 등과 연계한 농민시장 운영 등
• 슬로투어	전라북도 마을 만들기 축제, 맞춤형 마을 확대 조성, 걷기여행 콘텐츠 구축 확대 등
• 농촌경관	경관보전 특구의 적극적 활용, 소도시 지역 디자인 사업, 농촌 어메니티 자원조사 및 체계화 등
• 슬로공동체	지역단위 학습·문화 프로그램 확대, 지역주민공동체(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범도민 슬로운동(식생활교육과 연계), 슬로운동 민간단체 육성 등

- 도 단위의 전담부서 신설과 민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이를 지원할 관련 근거(조례) 및 추진하는 실행체계를 구축
  - 전담부서는 타 부서의 관련사업을 슬로시티 영역으로 종합하거나 확장하는 역할과 신규사업을 발굴·실행하는 기능을 담당
  -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보장하고 지원하기 위한 민간단체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칭)전라북도 슬로시티 추진위원회’ 구성을 제안
- 슬로시티로 상징되는 ‘삶의 질이 높아 살기 좋은 지역, 슬로시티 전라북도’를 지역 이미지로 구축하고 활용해야 함
- 전라북도 슬로시티 신규 추진이 가능한 사례의 제안
  - 고창군 : 서해안 갯벌체험을 중심으로 한 어촌과 고인돌, 온천, 장어·복분자 등의 먹거리를 연계
  - 순창군 : 전통고추장마을을 중심으로 한 전통발효음식과 섬진강 자연자원을 연계
  - 진안군 : 용담호 주변의 산채농업과 마을만들기 지구를 거점으로 아토피 한방을 연계



〈우리나라의 슬로시티 현황 및 주요특징〉

지역	전경			주요 특징
담양군 (창평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슬로푸드 : 죽염된장, 한과</li> <li>• 전통산업 : 죽공예, 대나무 소재 바이오 산업, 한과, 발효식품</li> <li>• 주요특징 : 향교, 가사문화, 남도문학의 분향, 죽세공품</li> </ul>
장흥군 (유치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슬로푸드 : 표고버섯</li> <li>• 전통산업 : 지렁이농법, 표고버섯, 생약초</li> <li>• 주요특징 : 생약초, 한방특구 건강과 장수의 마을</li> </ul>
하동군 (악양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슬로푸드 : 야생차, 대봉꽃감</li> <li>• 전통산업 : 야생차 가공 및 꽃감생산</li> <li>• 주요특징 : 야생차밭, 섬진강, 문학의 배경(최침판덕)</li> </ul>
완도군 (청산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슬로푸드 : 전복, 해초 등 해산물</li> <li>• 전통산업 : 전통적 어업 및 가공</li> <li>• 주요특징 : 가보고 싶은 섬, 낮은 돌담과 오솔길의 전통경관</li> </ul>
신안군 (증도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슬로푸드 : 소금, 함초식품</li> <li>• 전통산업 : 염전, 함초생산, 발효식품</li> <li>• 주요특징 : 갯벌, 해양생태계가 살아있는 섬</li> </ul>
예산군 (대흥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슬로푸드 : 붕어, 황토사과</li> <li>• 전통산업 : 주민자치 지역신문, 붕어찜, 붕어죽</li> <li>• 주요특징 : 예당저수지, 추사 김정희 고택, 500년 향교</li> </ul>
남양주시 (조안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슬로푸드 : 먹골배, 유기농 채소</li> <li>• 전통산업 : 연꽃단지, 짚풀 공예품, 유기농업</li> <li>• 주요특징 : 수도권 유일, 유기농업 지역공동체, 두물머리</li> </ul>
전주시 (한옥마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슬로푸드 : 비빔밥, 한식</li> <li>• 전통산업 : 한식, 한지, 한방</li> <li>• 주요특징 : 전통 한옥마을, 한식을 중심으로 한 전통문화</li> </ul>
청송군 (파천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슬로푸드 : 사과, 전통음식</li> <li>• 전통산업 : 천연염색, 청송한지, 청송옹기</li> <li>• 주요특징 : 주왕산, 주산지, 송소고택, 농악, 짚풀문화</li> </ul>

〈우리나라의 슬로시티 현황 및 주요특징〉

지역	전경	주요특징
상주시 (함창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슬로푸드 : 꽃감, 쌀, 누에고치, 막걸리, 꿀, 사과</li> <li>• 전통산업 : 친환경 농업</li> <li>• 주요특징 : 백두대간과 낙동강 생태축, 생태/자전거도시</li> </ul>

- ※ 올해 9월에는 한국 시장·군수 협의회가 창립, 슬로시티 이념의 실현과 한국적 슬로시티 운동 전개를 다짐
- ※ 2009년 부산시가 슬로시티 협력도시로 지정, 태평소금·태평염전(2009년)과 매일유업(2010)은 슬로시티 협력기업으로 선정
- ※ 행정안전부 2010년부터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CB) 대상에 ‘지역 슬로공동체 육성’ 사업을 포함하여 추진 중. 기존 슬로시티 운동을 지역공동체 단위로 개념을 좁혀 지역자원 활용, 슬로푸드 산업육성, 슬로체험 사업을 지원

| 참고자료 |

- 김용창, ‘새로운 도시발전 패러다임 특징과 성장편의 공유형 도시발전 전략의 구성’, 『공간과 사회』, 21(1), 2011.
- 박현춘·김승근, ‘마을계획에 따른 농촌경관과 지역성 고찰’, 『한국농촌건축학회』, 10(4), 2008.
- 백두주, ‘대안적 지역발전 모델에 관한 연구-장흥군 슬로시티 지정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0(4), 2008.
- 성주인, 농촌 경관관리 실태와 정책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5.
- 오동훈·홍정의, ‘한국형 슬로시티의 발전방향에 관한 소고’, 『한국도시행정학회』, 22(3), 2009.
- 이동필 외, 일본의 지역 활성화 관련 정책과 사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0.
- 장희정, ‘슬로시티 도입을 통한 대안관광 방안모색’, CERi엔터테인먼트연구, 8, 2007.
- 카를로 페트리니, 『슬로푸드, 맛있는 혁명』 도서출판 이후, 2008.
- 久繁哲之介, 『日本版スロ-シティー-地域固有の文化・風土を活かすまちづくり』, 學陽書房, 2008.
- Mayer, H. & Knox, P.L., *Slow Cities: Sustainable Places in a Fast World*, *Journal of Urban Affairs*, 28(4), 2006.
- Cittaslow Korea Network, www.cittaslow.kr



또 하나의 지역 활성화 전략  
슬로시티 구축을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





**전북발전연구원**

560-014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57(중양동 4가 1번지)  
Tel. 063-280-7100 Fax. 063-286-9206  
[www.jthink.kr](http://www.jthink.kr)